“불교상담 간과한 상담사法 제정 반대한다”

한국불교상담학회, 11월 12일 ‘상담사法’ 학술대회

심상정 등 상담사법 제정 추진
국가자격 조건으로 심리학 국한
法통과 시 ‘불교상담’ 위법 전락
선업 스님 “구제안 다각도 마련”
양성 과정 정비, 내실화 주장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국불교상담학회는 11월 12일 경주 황룡원 화랑홀에서 ‘불교상담과 심리상담사 법제정’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심리상담법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종교 상담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안타깝다. 불교 상담 및 종교 상담의 영향을 무시한 법안은 결코 찬성할 수 없다.”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는 11월 12일 경주 황룡원 화랑홀에서 ‘불교상담과 심리상담사 법제정’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심리사법 제정을 고찰하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심리상담학계는 심리상담사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고 심리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만 4300여 건(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 이르고 있어 국민들이 전문가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법제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선별 과정 속에 종교 분야와 예술심리상담, 놀이치료사 등 다양한 심리치료 서비스가 배제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상담심리사법 법안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상담사 법안’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심리상담사 법안’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안’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심리사법안’ 등 4건이 발의됐다.

이 법안들은 국가 자격증 응시 조건에 심리학 전공 또는 심리학과 전공과목 이수로 제한하고 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시 종교 상담을 포함해 교육, 사회복지, 아동, 간호 등을 전공하고 상담 활동을 하는 상담가 및 단체는 위법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법안 가운데 심상정 의원의 ‘상담사 법안’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담사 구제와 폭넓은 자격 취득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학술대회에서는 현재 준비 중인 법안들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심리상담사 법안 비교 및 불교계의 대응 방향’을 통해 “지난 11월 3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임상심리학회와 심리사들은 다른 단체는 쓸모없는 비전문가 취급을 했다”며 “여러 상담가들이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다른 법안을 마련해서라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불교상담가를 구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교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새롭게 점검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상담심리 관련 법제정에 대한 학교 및 불교상담의 역할’을 발표한 효록 스님은 “모든 사람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종교적인 색채를 걷어내고 불교상담의 과학적 접근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현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붓다의 성품(불성)을 회복하는 데 상담(심리치료)과 명상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학은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지금은 정신과 의사에게 사람들이 호소를 하고 있다. 학회와 학교가 할 일은 실전 상담을 위한 수련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민 신부(수원 가톨릭대)는 ‘종교의 입장에서 본 심리상담사 법제화’에서 “제출된 법안들 가운데 상담학, 종교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등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유사심리서비스’로 규정하고 있고, 심리학 전공만을 위한 독소 조항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의학과 심리학은 인간의 전인적 건강을 위한 결과이며 정신병리적 치료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종교와 영성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양규 한국불교상담학회장은 “심리사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동 쌍계사 일원 ‘명승’으로 지정돼

하동군 11월 17일 밝혀

경남 하동군은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다”고 11월 17일 밝혔다.

명승 지정은 지난 2월 하동군이 자연유산 우수 잠재자원 추천서를 제출하고, 문화재청의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지정예고를 거쳐 이뤄졌다.

명승은 경관성 · 역사성 등 종합적 가치가 충족돼야 지정된다. 이번 지정으로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의 종합적 가치를 인정받아 의미가 크다.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은 과거부터 여러 문헌에 등장하는 명승지로 역사 · 경관적 가치가 우수하다.

특히, 지리산 10경 중 하나인 불일폭포는 60m 높이의 거대한 폭포로 다양한 식생과 기암괴석, 계곡이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불일암에서는 지리산의 빼어난 비경을 볼 수 있다.

쌍계사에서 불일폭포에 이르는 산중은 통일신라 진감선사 유적과 쌍계석문 등 최치원의 행적이 현존하고 있다. 신선사상의 전형적 공간인 청학동의 장소로도 알려져 있다.

지리산 수림과 더불어 스님들이 왕래하던 옛길과 불일암 · 국사암 · 환학대 · 완폭대 각석 등 옛 명승 자원이 남아있는 등 학술 가치가 풍부하다.

하동군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력해 지정된 문화재를 모든 사람이 누리는 정책을 수립하고, 관광 자원화와 보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중앙일보 대학평가 2년 연속 9위 달성

학생교육 · 인문 연구성과 두각
건학이념 구현으로 나타난 성과

조계종립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2022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2년 연속 9위를 달생했다.

동국대는 “11월 14일 발표된 2022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2년 연속 역대 최고 순위인 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Energize Dongguk’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중심 대학으로 거듭났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 9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으로 9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 톱10 대학으로 기반을 다졌다.

동국대는 △학생교육 부문 4위(이전 5위) △교수연구 14위(이전 12위) △평판도 10위(이전 13위) △교육여건 29위(이전 26위)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보이며 2년 연속 9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평가영역별로 학생교육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동국대는 특히 창업지원 분야의 강점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학생교육 부문은 취업이나 창업의 양과 질, 현장실습이나 창업교육과 같은 사회 진출을 위한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동국대는 학생교육 부문에서 80점 만점에 57.010점을 획득해 4위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다.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3위(이전 5위) △중도포기율 5위(이전 8위) △외국학생 중도포기율 3위(이전 6위)를 기록했다.

동국대는 “올해 현장실습의 질적 평가를 강화해 양질의 실습을 가장 활발히 진행했다”면서 “학생과 기업의 요구사항을 조사한 뒤 교수진과 동문네트워크를 통해 적합한 매칭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습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창업의 양적 성과 뿐 아니라 질적인 수준 모두 만족시킨 결과로 높은 성적을 받게 됐다”고 자평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가장 높은 배점인 연구부문에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 특히 △인문사회 교수당 국내 논문 9위(이전 13위) △인문사회 저 · 역서 발간 13위(이전 27위) 등 인문계열 연구 성과에서 크게 약진했다.

평판도에서도 역대 최고 성적인 10위를 기록했다. 또한 △기업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11위(이전 15위) △학부모 진학 선호대학 10위(이전 13위)를 차지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2년 연속 9위를 달성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학의 기본인 ‘교육’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며 “건학위원회 출범을 통해 종단과 법인, 학교가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동국대는 현 순위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들과 합심하여 쉼없이 나아가 톱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용주사, 동국대 건학위에 장학기금 5천만원 기부

17일 전달식… 건학위 장학기금 활용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성법)가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11월 17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용주사 건학위원회 장학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용주사 주지 성법 스님과 용주사 관장 겸 학교법인 동국대 상임이사 성월 스님, 용주사 총무국장이자 삼막사 주지 성효 스님이 참석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에서는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박기련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학교법인에서는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는 윤성이 총장과 김애주 대외협력처장, 박광현 교무학생처장이 함께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학생들의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동국건학장학’과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일이면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사업을 시행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에 뜻깊은 기부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장학기금으로 학생들의 학업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과 용주사 주지 성법 스님이 장학기금 전달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용주사 주지 성법 스님은 “동국대 건학위원회에서 마련해주신 좋은 기회로 인재불사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다. 동국대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동국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